

望仙樓 上樑文에 대한 一考

全 淳 東*

I. 서론	1. 상량문 해석
II. 망선루 약사	2. 망선루 복원 관계 인물 검토
III. 망선루 해체와 상량문 발견	V. 망선루 상량문의 성격 및 의의
IV. 상량문 釋文과 관계 인물	VI. 결언

I. 서론

청주를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역사의 도시라고 할 때, 이 모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망선루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청주 지역에 역사성이 있고 유서 깊은 문화재가 적지 않은데, 특히 망선루는 역사적인 고건축적 문화재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특히 일제기 이후 청주 근대 교육의 산실이요 민족운동·사회문화운동의 보루로서 역할을 감당하여 온 이 지역 유일의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청주시 남문로 1가 154번지 청주제일교회 구내에 위치하고, 지방유형문화재 제 110호로 지정되어 있는 귀중한 망선루가 이미 노후하여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이르게 되자, 관심 있는 시민·민간단체 및 교회는 시민운동차원에서 그리고 교회차원에서 이진 복원운동을 관계 당국인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열렬히 지속적으로 건의·호소하여 왔다.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청주시에서는 마침내 문화재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이진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마침내 1999년 10월 말부터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이 건물 해체과정에서 망선루 대들보로부터 상량문이 발견되었다. 이에 평소 망선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필자는 이 상량문이 발견된 경위, 상량문의 해석, 거기에 관련된 인물 소개, 그리고 상량문이 가지는 의미 등을 살펴봄으로써 망선루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망선루 약사

망선루를 소개하는 문헌 중 제일 오래된 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이다.¹⁾ 이 기록에 의하면 망선루는 고려 관아의 건물로, 청주 客館의 동쪽에 위치한 누각이었으며 옛 이름은 聚景樓였다. 14세기 후반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공민왕은 난을 피하여 안동까지 내려갔다가 홍건적의 난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還京하는 도중에 청주에 수개월 머물러 정사를 돌보았는데 그 때 공민왕 10년(1361) 청주에서 文科와 監試를 치르고 합격자의 榜을 이 취경루에 내 걸었다고 전해진다. 그후 이 누각이 노후된 상태로 헐어 있었던 것을 100년이 지난 세조 7년(1461)에 牧使 李伯常이 중수하였으며 이 때에 韓明澹가 편액을 고쳐서 望仙樓²⁾라 하였다. 그후 李暹(이섬)이 중수하고 다시 牧使 李修得이 보수한 바 있는 2층 누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누각은 고려 조선시대에 걸쳐 文士들이 함께 모여 詩文을 읊고 시국과 정론을 논하던 장소로 활용되었다.

일제시대에는 청주 면사무소, 청주 여자공립 보통학교 건물로 사용되어 오다가 일본

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15, 清州牧 樓亭條.

2) 흔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望仙樓”라는 표기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는 “望僊樓”라 여, 흔히 쓰고 있는 ‘仙’자가 ‘僊’자로 표기 되어있으나 ‘僊’과 ‘仙’은 모두 ‘신선 선’자로 같은 뜻이다. 『說文解字』에 의하면 ‘僊’은 ‘長生僊去 人人嚮’이라 하였고, 『釋名』에 老而不死者曰仙 仙은 僊也’라 하고 있다. 僊은 ‘가볍게 춤추면서 올라간다’는 의미의 동사로서, ‘飛揚升高’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僊人이란 천상을 가볍게 날며 노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說文解字』에 의하면, 仙은 ‘人在山上兒’라 하여 산상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僊’이 나중에 ‘仙’으로 바뀌게 된 것은 신선의 飛上飛下의 근거지 또는 그의 지상에서의 居處가 高峰山嶺의 산악이라고 믿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곧 산악은 登仙의 장소이자 신선의 현세적 거처이기 때문에 신선을 山上之人으로 생각하여 ‘僊’ 대신 ‘仙’자를 즐겨 썼던 것이다. ‘神仙’이라 하여 仙에 神을 붙여 ‘神仙’이라 한 것은 仙의 신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僊人, 仙人, 神仙은 다 같은 의미로, 이들은 장생불사와 비상비하를 자유로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變化自在하고 자연적 조건에 대해서도 초월적·절대자유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경찰서 내 武德殿 신축을 빌미로 1922년 누각 망선루가 헐리게 되었다. 이에 청주제일교회 장로요 청주청년회 회장으로 활약하던 민족운동가 김태희를 중심으로 일제기 민족문화 유산을 지키려는 청주청년회, 청남학교 교직원, 교회 청년 및 시민들이 협력하여 청주제일교회 구내에 이건 복원하였다.³⁾ 1923년부터 시작된 복원 건축은 마침내 1924년 1월에 이르러 상량식이 거행되었다.

이 망선루 복원운동은 일제시대 청주의 민간단체가 벌인 최초의 시민운동이고, 나라 잃은 민중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는 민족 문화 보존 운동이었으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애국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실로 지대하다고 하겠다.⁴⁾

망선루는 길이 64자, 폭 28자, 정면 5칸, 측면 3칸 총 15칸에 약 50여 평 면적을 차지한 2층 건물로 이건 복원되었다. 본래 1층과 2층이 특 트인 누각이었지만 당시 이 건물을 옮겨 복원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육영의 장소로 활용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1, 2층의 특 트인 사면 공간을 벽돌로 막고 창문을 내었으며 안에도 칸을 막아 교실을 만들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양쪽으로 내었다. 외부 형태는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렸지만 내부 구조는 실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조하여 배치하였다.

복원된 망선루는 이후 주로 청남학교 건물로 사용(1924-1938)되었으며 그 외에 청주성경학원, 상당유치원, 야학 등의 교사로 사용되었고, 한글 강습회 등 각종 집회와 강연 장소로 활용되었다. 해방 후에는 세광중학교, 세광고등학교, 청신고등공민학교의 교사로 사용되었으며, YMCA회관, YWCA회관, 해방후의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忠北支部, 淸州三角少年團(대한보이스카웃의 전신) 등 여러 단체와 기관이 이곳을 활용하였으니, 망선루는 근대교육의 산실이요, 일제기 민족문화의 보루로서, 충북 교육·문화의 요람지가 되었던 것이다.

충청북도에서는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1982년 12월 17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110호”로 지정하여 보호하여 왔다.

이러한 망선루가 세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외면당하고 있었다.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은 과거 청주 남문(청남문)에서 약 300여m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위치도 좋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육거리 시장 통에 연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궁벽하여 시민들이 발걸음을 쉽게 옮기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 거기에 더욱 이 건물이 교회 구

3) 일제시기 망선루 이건 복원에 관한 내용은 全淳東·崔東峻, 1999. 「日帝期 淸州地方의 民族教育運動 -淸南學校를 중심으로-」 『中原文化論叢』2·3輯, pp.103~109 참조.

4) 이재재, 1998. 「충청지역교회의 발자취」 『충북노회사료집』(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간), p.439 ; 全淳東·崔東峻, 앞 글 「日帝期 淸州地方의 民族教育運動 -淸南學校를 중심으로-」, p.107.

내에 있는 관계로, 일반사람들은 그것이 문화재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건물이려니 생각하기가 일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이 건물은 시민의 사랑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10여년 전부터 망선루 이전 복원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이 건물이 노후하여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동안 망선루를 관리하여 오던 청주 제일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망선루의 복원을 당국에 호소하여 왔다. 교회 신축을 계획하는데 망선루 때문에 공간 배치가 장애가 된다는 면도 있겠지만, 애착을 가지고 아껴오던 귀중한 문화재가 노후하여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상황 판단에서였다.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교회가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나 시에서 수리와 보존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도 않고 있어,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한계상황까지 왔다고 인식하고 이전 복원을 당국에 호소한 것이다.

이 문제는 시민들에게까지 여론화되어갔다. 특히 청주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순수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청주시민회가 망선루 이전 복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문제를 시민회의 본격적인 사업으로 정하고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망선루 이전 복원을 줄기차게 요청하였다. 망선루 이전 복원에 관련된 설문조사, 망선루 보존을 위한 촉구 성명발표, 충북시민회 신문인 “충북시민”을 통한 홍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⁵⁾ 1995년 7월 10일에는 청주시민회 주최로 청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망선루 이전 복원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화하였고⁶⁾ 1997년에는 ‘세계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6월 23일에 유네스코 충청북도 협의회 주최로 “내고장 문화유산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하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여 망선루의 이전 복원 문제의 당위성과 절박성을 강조하였다.⁷⁾ 더불어 시민들과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어 이에 대한 연구와 글들이 이어 발표되었다.⁸⁾

5) 청주시민회, 1999. 『청주시민회 10년사』, pp.97~99.

6) 이날 공청회에서는 발제에 김경표 교수(충북대)의 「망선루의 고건축사적 의미와 교육문화재로서의 가치」라는 논제가 있었고, 토론자로 장현석(현석건축소장), 최동준(세광고교장), 임병무(충청일보편집부장), 윤석위(문화사랑모임회장) 등이 참여하였다. 충북에 있는 고려 시대 最古 목조 건축물이요 청주 교육도시로의 명성을 얻게 한 교육관련문화재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청주제일교회 마당에 방치되어 있는데, 이 망선루를 교육문화도시 청주의 자존심 회복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이 지적되었다.

7) 유네스코 충청북도협의회, 1997. 『내고장 문화유산의 현황과 과제 -문화유산기념세미나 자료집-』(1997. 6. 23).

8) 그 동안 이 망선루에 대해서는 『청주시지』에서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망선루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시민들의 여론형성을 위한 공청회나 세미나 외에 글

Ⅲ. 망선루 해체와 상량문 발견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망선루가 이미 노후하여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망선루 복원 이견에 대한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청주제일교회에도 건물 이전과 복원을 강하게 요구하여 왔다.

청주시에서는 복원을 계획하고 망선루 이전 복원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충청북도문화재 위원회에 이전 복원에 대한 연구검토를 의뢰하였다. 복원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하였다. 원래의 위치인 북문로 1가 170-1번지의 구 경찰서 자리로 이전하여 복원하는 안, 청주제일교회 구내의 현재 그 자리에 복원하는 안, 중앙공원에 복원하는 안, 제 3의 장소에 문화재단지를 조성하여 그곳에 복원하는 안 등 여러 견해가 대두하였다. 원래의 위치로 이전 복원됨이 가장 합당하고 최선의 일이나 그곳은 이미 사유지가 되어 있어 그 땅을 매입하는 데만도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일임으로 현실성이 희박하고, 제 3의 장소를 찾아 문화재단지를 만든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며, 현재의 자리는 위치가 궁벽할 뿐만이 아니라 주택 밀집지대로 통풍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더욱 교회의 이전 요구도 있어 다른 곳에 옮겨 복원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소를 옮긴다고 한다면 현재의 위치에서나 본래의 위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청주 東軒이나 충청도 병마절도사 營門 등의 문화재와도 가까이 있어 연결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 중앙공원이 최선의 장소라는 쪽으로 여론이 집약되어, 당국에서는 이견 장소를 중앙공원⁹⁾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로 발표된 것을 보면, 『청주문화』(청주문화원) 10 집(1995)에 특집으로 “망선루 이전 복원에 대한 지상공개강좌”를 다루어 「망선루 이전 복원의 당위성」(최동준), 「망선루 건축사적 의의와 문화재로서의 가치」(김경표), 「망선루 이전 복원해야한다」(임병무) 등의 글이 게재되었고, 이덕주, 1997. 「한국기독교문화유적을 찾아서 -충청도 선비들의 믿음이야기-」, 『기독교사상』 1997-10., 이쾌재, 1998. 「충청지역의 교회발자취」 『충북노회사료집』, 유네스코 충청북도 협의회, 1997. 『내고장 문화유산의 현황과 과제 -문화유산기념세미나 자료집-』, 최동준·전순동, 1999.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 『중원문화논총』2·3합집(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등에서 망선루가 거론되고 있다.

- 9) 남문로 2가에 있는 공원으로 청주시의 중앙이 되며 옛날에 청주목 관아였을 뿐 아니라 충청북도 도청이었던 곳이다. 문화동 현 청사로 이전한 후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 압각수, 대원군 척화비, 의병장 한봉수의 비석 등 여러 문화 유적이 많이 있고 경관이 아름답고 쾌적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이전 복원 장소를 중앙공원으로 예정한 청주시 문화재 담당 부서는 해체 및 복원 작업을 추진하였다. 해체와 복원 작업은 문화재 건축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장현석 건축사무소가 담당하였다.

마침내 10월부터 11월 초 약 3주간에 걸쳐 해체작업이 실시되었고 그 가운데 11월 9일 망선루 大櫟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상량문이 발견되었다.

상량문은 상량(대들보)에 가로 60cm, 세로 6cm 크기로 파여진 홈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 홈 안에 그냥 그대로 상량문을 넣은 것이 아니라 금속계로 된 원통형 캡슐(길이 55cm 직경 4.2 cm의 원통형 합석) 속에 상량문을 넣어 밀봉하여 홈 안에 넣었다. 그 위에는 “上櫟文在中”이라 쓴 판자(60cm×6cm×2cm)로 두껍을 하여 덮었다. 그 홈 안에서 “상평통보” 엽전 1닢도 발견되었다.

그 원통형 캡슐 속에서 “望仙樓의 移建原因과 略史文” 1매, “淸州 青年會 執行委員 및 淸南學校 職員 名單” 1매, “上櫟文” 2매 등 모두 4매의 귀중한 문서가 나왔던 것이다.

IV. 상량문 釋文과 관계 인물

1. 상량문 해석

원통형 캡슐 속에서 나온 “望仙樓의 移建原因과 略史文”과 “上櫟文”은 현대인이 보기 어려운 한문투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 그것을 여기에 번역하여 옮겨보려 한다.

상량문이란 건물을 지은 후 吉祥을 기원하는 일종의 축원문이다. 이 상량문은 이름 그대로 望仙樓, 곧 仙人을 大望하는 樓閣의 상량문이어서 그런지 주로 신선사상에 관한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 1156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용호가 글을 짓고 윤홍식이 해서체로 기록하였는데, 그 구성은 신선에 대한 찬양, 망선루를 건립하게 된 이유, 망선루의 위치, 망선루의 주인, 망선루가 있는 청주지역의 빼어남과 문화전통, 망선루의 내력, 망선루 건축의 정교성, 망선루의 위풍과 아름다움, 망선루 건축 후의 태평성대 기원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기에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문체는 축원문임으로 고전적 경어체를 사용하였다

[망선루 상량문](全文)

엎드려 생각하건대,

星冠¹⁰ 쓰고 月牌¹¹를 찬 도사가 玄圃¹²에 강림하는데, 이곳에 어찌 金殿瑤臺¹³가 없단 말이고. 霓裳을 입고 霞蓋를 쓴 신선¹⁴이 靑邱¹⁵에 노닐려는데 어찌 珠宮貝闕¹⁶이 없단 말이고. 한가한 날에 遊賞之所¹⁷를 갖추어 놓으려, 이름 있는 큰 고을의 空地 중에서 아름다운 곳을 자리로 잡았노라

대저 생각하건대 이곳의 주인은 결코 邱壑¹⁸에 묻혀 지낼 천한 몸이 아니요 참으로 속세를 초월한 깨끗한 인물이로다.

이름은 瑤籙¹⁹에 등재되어 鶴을 타고 三島²⁰를 노니는데, 좌로는 浮邱公을, 우로는 洪厓를 거느리도다.²¹ 관직은 瓊班²²에 철해져 있어 용을 타고 九衢²³를 다니는데 아침에는 봉래산, 저녁에는 방장산이로다.

無窮之門과 廣漠之野를 소요하노니 玉樹琪花로다.²⁴ 澹泊²⁵을 집으로 삼고 淸眞²⁶을

-
- 10) 별빛처럼 아름답고 휘황하게 번쩍 번쩍 빛나는 冠으로, 이것은 道士들이 쓰는 관이다.
 - 11) 달 모양이 그려진 佩. 佩란 옛날 朝服에 차던 옥으로 된 장식용으로 끈을 달아 몸에 찻는데, 天子는 白玉, 公侯는 玄玉, 大夫는 蒼玉 등 계급에 따라 달랐다.
 - 12) 崑崙山에 있다는 신선만이 사는 곳
 - 13) 금과 옥으로 장식한 아름답고 화려한 宮殿·殿閣
 - 14) 霓裳은 무지개로 만든 치마로 신선이 입는 옷이고, 霞蓋는 안개로 만든 모자로 신선이 쓰는 관임
 - 15) 신선이 산다는 땅. 또는 별 이름으로서 28宿중의 하나로, 동남쪽에 있는 일곱별을 말하는데, 이 별이 우리나라를 맡고 있다는 신앙에서 우리나라의 별칭으로 쓰인다. 또는 동방의 나라라는 뜻도 있다.
 - 16) 珠宮貝闕 : 아름다운 眞珠와 貝殼으로 장식한 궁전. 河伯(水神)이 사는 용궁은 이렇게 장식되어 있다고 함
 - 17) 遊賞은 遊覽觀賞의 준말로, 유람하며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마을을 즐기는 일.
 - 18) 邱 : 언덕구, 壑 : 골짜기 학, 곧 邱壑은 시골을 의미 함
 - 19) 瑤籙은 옥으로 만든 호적으로, 귀한 신분이 반영되어 있는 名籍.
 - 20) 三島 : 해상에 있는 仙境으로, 이곳에 신선이 산다하는데, 蓬萊山, 方丈山, 瀛洲山을 말함
 - 21) 浮邱는 浮丘公을 말하는 것으로, 浮丘公은 전설상의 仙人이다. 그는 接王子喬以上嵩高山했다 한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공자의 諱를 피해 '丘'를 '邱'로 썼음. 洪厓도 전설상의 선인이다. 『文選』의 郭璞의 遊仙詩 3에 “左揖浮邱軸 右拍洪厓扁”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용한 것 같다.
 - 22) 瓊班 : 옥에 기록해 놓은 좋은 반열. 곧 조정의 높은 벼슬의 반열에 있음을 이룸.
 - 23) 천자의 도읍 중에 있는 아홉 개의 큰 길. 도읍지, 京師, 서울을 의미하기도 함
 - 24) 玉樹琪花 : 仙境에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나무와 꽃. 비슷한 말로 琪花瑤草(아름다운 꽃과 풀)라는 말이 있다.
 - 25) 澹泊 :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함

고향삼아 차분이 거하노니 산수가 아름다운 煙霞泉石²⁷⁾이로다.

그리고 우리 瓊城²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쪽으로는 호남과 영남 百洲의 땅을 끌어 제압하고 북으로는 청천과 진천의 만 구비 꺾여 흐르는 냇물을 잡아끌어 누르고 있다. 주변 멀리 아름답고 푸른 경치가 길게 펼쳐 있으며 마을의 밥짓는 연기와 桑麻가 서로 마주 보이는 평화로운 곳이로다. 높고 높은 上黨이 가로질러 있어 사람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다.

서해의 海鹽은 눈처럼 많이 쌓여 있고 동해의 海苔는 구름처럼 풍요하니 참으로 하늘이 내려준 물화의 보고로다. 아침 저자에 사람들이 비 오듯이 몰려들고 저녁시장에 사람들이 싸락눈처럼 흩어져 나가니 과연 백성들이 많이 모여 사는 신령한 땅이로다.

이에 높고 포송포송하게 잘 마르고 시원하게 확 트인 밝은 언덕에 영롱 찬란하고 높고 흰칠한 누각을 짓기로 하였도다.

匠星을 처마 끝에 달아놓고 목수가 재목을 가리고 鐵山(못)이 난간 사이에 누르고 있으니 금정이 빛을 내도다. 바람을 도끼 삼고 달을 자귀 삼아 누각을 짓는데 기묘하고 정밀함은 옛날 般倕²⁹⁾의 巧匠에서 빌리고 끌로 휘둘러 파고 풍로로 녹여 만드는 기술과 노련함은 옛 鍾範³⁰⁾에서 얻었도다.

六鰲³¹⁾는 봉래산, 영주산을 등에 지고 붉은 안개 내뿜으며 머리를 위로 쳐들고 있고, 쌍 무지개는 오성과 이십팔수의 은하를 마시며 푸른 안개 속에 꼬리를 드리웠도다. 오호라 신축한 누각의 기반 견고하기가 총생한 대나무 같고, 치밀함이 무성한 소나무와 같은데, 바야흐로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리도다. 창공에 학이 나르고 봉이 비상하는데 위로 높이 날아 千尺이나 되는 철당간³²⁾에 이르고 용과 호랑이는 푸른 벽 아

26) 清真 : 마음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음.

27) 煙霞泉石 : 煙霞는 연기와 놀 곧 아름다운 산수의 경치를 이룸이요, 泉石은 샘과 돌, 물과 산으로서 轉하여 산수의 경치의 빼어남을 일컫는 말이다.

28) 청주의 옛 이름

29) 般倕 : 魯나라의 魯般(公輸般)과 舜臣인 倕를 아울러 부르는 말로 노반과 수는 모두 옛 전설상의 뛰어난 장인이었다. 그후 巧匠을 일컫는 말로 널리 사용되기도 하였다.

30) 鍾는 단련의 뜻이고 範은 쇠를 녹여 틀에 넣어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추범은 곧 용광로에 쇠를 녹여 틀에 부어 넣고 물건을 아름답게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1) 여섯 마리의 큰 자라. 자라는 봉래·영주·방장의 삼신산을 등에 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든든한 주춧돌을 六鰲로 비유한 듯하다.

32) 이 철당간은 남문로 2가 48-9번지에 우뚝 서 있는 용두사지 철당간으로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제 41호로 지정되었으며 이 지역의 자랑스런 문화재이다. 당간의 현 높이 12.7m, 지주의 높이 4.2m, 폭 40cm, 두께 38cm, 철통 높이 63cm, 직경 40cm로 된 당간으로 이 주변에 龍頭寺라는 큰 사찰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 광종 13년(962)년에 조성된 것이며 특히 철당간에 있는 금석문이 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 철당간에 대해서는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3. 『清州市歷史遺蹟』 pp. 209~210; 이혜선, 1996. 「〈龍頭寺鐵幢記〉에 보이는 高麗初 清州豪族」 『湖西文化研究』14. 참조.

래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아래로 百間이나 되는 南石橋³³⁾로 통하도다. 푸르스름한 아지랑이 낀 산봉우리며 구름 피어오르는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겹겹이 에워싸여 있어, 마치 담밖에 상투 틀려 있는 것 같고, 千村萬落의 많은 촌락이 바둑판 위의 돌 같아 그 역력함이 거울 속에 얼굴 보듯 하구나. 뉘엿뉘엿 석양 질 때면 우암산 목동의 피리소리 들려오고 부슬 부슬 내리는 가는 비는 금천의 고기잡이 등불 전승하도다.

처음에는 이 누각에 취경루라 편액을 달았는데 중간에 다시 망선루라 고쳐 걸었도다.

고려 공민왕의 御車가 잠시 머물렀다는 소식 전해진지 오래이나 至正期³⁴⁾의 옛 고적 아직도 그대로 있도다. 李 宰相³⁵⁾이 수선한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으니 天順 시기의 아름다운 이름 없어지지 않았네.³⁶⁾

옥으로 장식한 서까래 끝에 햇빛 비치니 옥섬돌에 기러기처럼 가지런히 줄지어 있고, 아름다운 비단 무늬 놓은 곳에 별 빛이 흐르니 물고기가 기와에 비늘을 얹어 놓은 것처럼 아름답도다.³⁷⁾ 비취색의 발과 황금의 벽에는 상서로운 안개가 밤마다 드리우고 芙蓉의 휘장과 白銀의 상에는 길상의 무지개가 날마다 걸쳐 있으니 이것 어찌 사람의 힘으로 꾸밀 수 있으랴 바로 하늘의 조화로 된 것이로다.

아득히 멀리 단군, 기자 수 천년 팔도에 걸쳐 백성을 다스려 번영과 왕성함을 이루었고 멀리 신라와 고구려가 1백 세대를 지나며 삼한 땅의 風雨를 다 일일이 겪었도다.

아름다운 玉磬을 치는데 董雙成의 笙篁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곡에 어울리고³⁸⁾ 玉簫를 타며 즐기는데 王子晉의 鶴³⁹⁾처럼 하늘의 신비한 靈音을 섞어 놓았도다. 대저 건물에 이

33) 南石橋 : 청주시 남단에 연해서 무심천에 걸쳐 있는 석교라 하여 남석교라 한다. 신라시대 漢宣帝(BC74~49) 五鳳 원년(BC 57) 곧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년 전에 길이 33間, 폭 11尺을 모두 석재로 쌓아 만든 다리라 한다. 2층의 교각을 이루었으나 물길의 변천과 1932년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매몰되고 말았다. 옛날에는 구 정월 14일 저녁에 자기 나이 숫자만큼 이 다리를 밟으면 연중 건강하다하여 踏橋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다리 양단에 높이 약 1간의 고려건 4개가 세워져 있었다고 전해진다. 橋板, 橋脚 모두 거대한 石材로 되어 있었으니 가설 당시의 고을의 번영을 상기할 수 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육거리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문로 1가와의 경계 중앙로 도로(동명약국 앞 도로) 밑에 남석교가 묻혀있다. 최근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석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4) 元 順帝의 연호(1341~1367), 이 때 곧 공민왕 10년(1361)에 과거시험을 치르고 합격자의 방을 이곳에 걸었고 함.

35) 조선시대 1461년 목사 李伯常이 망선루를 중수하였고 이때 청주지역 출신 세도가 韓明澮가 누각의 편액 취경루를 고쳐 망선루라 하였는데, 이곳에서의 이 재상은 이백상을 의미하고 있다.

36) 天順은 明 英宗의 연호(1457~1464)

37) 햇별에 비치는 서까래와 달밤에 보이는 기와지붕의 아름다움을 형용한 말

38) 원문의 雙成은 비파를 잘 타던 董雙成을 말한다.

39) 王子晉의 鶴 : 子晉은 전설상으로 周의 靈王 太子로서 이름은 王子喬, 字가 子晉이다. 그는 본

어찌 높고 밝은지 귀신이 반드시 넘볼 것이요 물건이 어찌 풍성한지 造化翁이 또한 필경 시기하리라.

麻姑 선녀⁴⁰⁾의 손이 몇 번이나 거쳐갔기에 恒河⁴¹⁾의 그 아름답던 얼굴이 벌써 거칠어지고 주름졌단 말인가.⁴²⁾

天荒地老⁴³⁾는 거꾸로 매단 병의 물 쏟아짐 같아 돌이키기 어렵고 雲翻雨覆⁴⁴⁾의 세월 비탈진 언덕 판을 내려 달리는 둥근 구슬과 같으니 막을 길이 없도다.⁴⁵⁾

남산 북산이 기둥처럼 각이고 언덕 변하여 골짜기가 되고 골짜기 변하여 언덕이 되었네. 長亭이나 短亭⁴⁶⁾의 鉤心(이곳의 鉤는 鉤心. 구심이란 가마 밑의 중심에 있는 橫木으로 가마를 수레축에 단단히 붙들어 매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이 다 퍼져서 마치 솟돌처럼 평평하고 반질반질하게 되었고 화살처럼 곧게 되었고도다.⁴⁷⁾

그런 까닭에 百尺 누각이 하루아침에 빈터가 되고 말았도다. 愚婦 匹夫는 嗟歎하며 오직 無是公子에 그 탓을 돌리고 있을 뿐이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烏有先生의 탓으로 돌리도다.⁴⁸⁾

否往泰來⁴⁹⁾의 순환의 천리가 저기에 있고 苦盡甘來⁵⁰⁾라는 盛衰의 물리 여기에 있도다.

다행스럽게도 여기 청년들은 孟解처럼⁵¹⁾ 豪俠한 기풍을 지닌 자이고 연나라와 조나라의 비분 강개한 선비⁵²⁾에 견줄만한 우국지사들이외다. 예전의 설계에 따라 옮겨 짓되 이미

래 피리를 잘 불어 바람을 일으키고 봉황을 울게 하기를 즐겼다고 한다. 神仙 浮丘公한테 嵩山에서 수련을 쌓고 후에 선인이 되었다 한다.

40) 麻姑는 여자 신선으로, 신선 王方平의 누이동생이며 姑餘山에서 수도하였다고 한다. 絳珠河畔에서 영지버섯으로 신선이 마시는 술을 잘 빚었다고 하며 3월 3일 西王母의 생일 때 祝壽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민간에서는 마고 선녀를 아름다움과 장수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옛날 여자의 생일을 축하할 때 마고 선녀의 그림을 그려 선물하였다. 이 아름다운 선녀의 손은 마치 새의 발톱과 같이 생겨 손톱이 긴 선녀로 알려져 있다.

41) 恒河는 姮娥와 같은 것으로 예쁜 여자를 이름.

42) 이 구절은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일컬음.

43) 天地가 늙어감

44) 雲翻雨覆 : 구름 끼고 비 오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함을 이르는 것으로 많은 세월이 흐름을 비유함

45)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함.

46) 10리마다 놓여 있는 宿驛을 長亭이라 하고 5리마다 놓여 있는 宿驛을 短亭이라 함

47) 世事의 변천이 격심함을 형용함.

48) 無是公子는 亡是公을 말하는데, 亡是公이나 烏有先生은 세상에 실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사람의 이름으로 漢의 司馬相如가 그의 문장가운데 가설한 인물이다.(漢書』卷 司馬相如 列傳 上)

49) 주역 64괘에서 '否卦'는 막힘이고 '泰卦'는 통함. 否往泰來는 비운이 가고 행운이 온다는 뜻.

50) 쓴 것이 다 하고 단 것이 이룬다는 말

51) 맹해 : 전국시대의 용사 孟賁과 한 나라의 입협 郭解를 지칭한 말.

52) 춘추전국시대의 燕나라, 趙나라에는 고래로 우국의 슬픈 노래를 부르는 선비가 많았다고 하며

넓고 좋은 터의 길흉을 점쳐 보았고 새로 짓는 공사를 알리고 수축함에 있어 남원과 북원의 빈부를 따지지 않았도다. 여력을 남기지 않고 서까래를 바꾸고 문설주를 갈면서 모두 깨끗하게 소제하고 모두 이전의 규모와 형세를 따라 곡절을 살펴 方隅를 繩尺(먹줄과 자, 법도와 준척)에 맞게 하였노라. 靑山의 모습 바꾸니 섬돌과 정원의 목은 때 모조리 다 치워졌으며 綠水도 광채를 더하니 창문도 새로 말끔하게 되었도다.

이 망선루는 무릇 2천년을 지켜오다 중간에 헐렸고 移建 공사는 4·5 개월 걸려서야 비로소 완성되었도다. 온갖 재앙 죄다 없애며 남은 연기마저 몽땅 흘날려 버리고 상서스러운 일만 반드시 찾아와 봄날의 햇살처럼 집에 가득하게 하소서.

雙鸞을 그린 鏡匣(鸞은 부부 금슬이 좋은 새 이름.)은 범상을 초월하여 玉女가 내려와 자리하고, 彩鳳을 그린 香臺는 세속을 떠나 있어 仙翁이 찾아와 난간에 기대리로다.吉日을 택하여 낙성하니 축하하러 모인 사람 오늘 저녁부터 영원하리라.

쟁반에는 산해진미를 다 갖추었는데 碧藕와 蟠桃⁵³⁾도 있고 바람은 아홉 등불을 흔드니 琳筵玉榭⁵⁴⁾로다.

紫氣⁵⁵⁾ 그득 에워 싸 노자를 函谷關에서 만나고, 靑鳥⁵⁶⁾가 사뿐사뿐 날아오니 西王母를 瑤海⁵⁷⁾에서 맞이하도다. 鸞鶴⁵⁸⁾이 날아 모여드니 영롱한 처마가 노을 빛 휘장에 나직하고 燕雀이 축하하며 날아 들어오니 옥돌로 장식한 집에 비단무늬 장막을 드리웠도다.

꽃 같고 초승달 같은 曲眉⁵⁹⁾를 지닌 豐頰⁶⁰⁾의 美人이 긴 옷자락을 끌면서 鳴琴을 뜯고 珠玉같은 문장을 지닌 學士가 붉은 종이를 펼치고 그 위에 붓을 뽑아 들도다.

壯大美麗한 건물을 옮겨 짓는데 도우려는 것이외다.

어여차 들보를 동쪽으로 들어 올리니 멀리 扶桑⁶¹⁾바다 위로 붉은 해 떠오르도다.

名岳에서 노니는 신선이 보일 듯하고 너풀너풀 생황소리에 학이 구름 속에서 내려오도다.

‘燕趙悲歌士’는 곧 우국지사를 이름

- 53) 碧藕는 부용을 의미하고 蟠桃는仙境에 있다는 큰 복숭아로 장수의 상징이다.
- 54) 琳筵 : 옥으로 장식한 자리. 玉榭 : 옥으로 장식한 정자
- 55) 도교에서는 紫色을 이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자주빛의 瑞氣를 말함
- 56) 말이 셋 달린 푸른빛의 새로 서왕모에게 먹을 것을 달라다 준다 함. 東方朔은 靑鳥를 서왕모의 使者로 여겼다 한다.
- 57) 서왕모는 여신전의 최우두머리이며 요해는 서왕모가 사는 궁전임
- 58) 鸞 : 전설상의 瑞鳥로 털은 五彩를 갖추었고 소리는 五律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靈鳥는 천하안녕의 징조로 여겨지고 있다. 鶴 : 옛날부터 瑞鳥라 일컬어지며 실제로는 사오십년밖에 살지 못하나 천년을 산다고 여겨지는 새이다. 그리고 鸞鶴은 모두 선인이 타고 다닌다는 새이다.
- 59) 曲眉 : 초생달처럼 가늘고 굽은 눈썹으로 미인눈썹을 형용함.
- 60) 도톰하게 살진 탐스런 볼
- 61) 동쪽 바다의 해 돋는 곳에 있다는 神木 또는 그 神木이 있다는 곳

어여차 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리니 析木津⁶²⁾ 가에 지는 해가 나직하다.
은하수는 멀리 일천 개의 산골물 사이로 떨어지고 은하의 맑은 모래는 눈같이 흰데 저
녁연기에 새들이 지저귀도다.
어여차 들보를 남쪽으로 들어 올리니 멀리 산봉우리 웅기종기 자리하고 있고 물은 못에
가득하도다.
우거진 수풀너머로 은은히 인가 비치고 매일 아침저녁 밥짓는 연기 자욱하도다.
어여차 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리니 내와 들은 아득하여 끝이 없고
물이 굽이굽이 돌고 산이 구불구불 에워싸기 몇몇 겹이며 萬戶에 복사꽃 활짝 피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네.
어여차 들보를 위로 들어 올리니 새벽 동녘의 빛이 雲錦帳⁶³⁾에 밝게 비치고, 걸쳐 있는
무지개 다리, 보기에 더욱 좋고, 봉새⁶⁴⁾ 날개 퍼 하늘을 치니 그 기세 호탕하구나.
어여차 들보를 아래로 내리니 鳳駕⁶⁵⁾ 타고 아래로 八垓⁶⁶⁾를 굽어보네
곳곳의 閭閻 집 다투어 격양가 부르고⁶⁷⁾ 玲瓏하게 장식한 만 가닥의 실타래는 붉은 瑞
氣를 뿜어 내도다.
엎디어 바라건대 상량을 한 후에는 좋은 나무에 늘 따사로운 봄 깃들고 아름다운 풀이
시들지 않게 하소서
한 세상 壽域⁶⁸⁾에 올라 時和年豐⁶⁹⁾하게 하소서
만민을 康衢⁷⁰⁾에서 살게 하여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하소서
진시황 한무제처럼 層城高閣에서 오래도록 세월 보내며 사는 그런 행적과는 달리 그저
바라기는 安期生⁷¹⁾이나 偃佺⁷²⁾ 신선 같이 아름다운 창과 옥으로 장식한 대자리에서 세상

-
- 62) 析木津 : 별자리의 이름. 析木은 12星의 하나이고 28宿으로 하면 尾箕兩宿이 되며, 析木津은 析木星 다음의 銀河水를 말한다.
63) 구름무늬로 수 놓여진 비단 휘장
64) 상상의 새로 날개의 길이가 3천리이며 한번에 九萬리를 난다고 전해지고 있다.
65) 鳳駕 : 천자가 타는 가마 또는 신선이 타는 가마
66) 팔방의 끝
67) 이 부분의 원문 「撲地」는 「擊壤」의 뜻
68) 壽域은 仁壽의 지역이란 뜻으로 仁德이 있고 壽命이 길며 太平盛世를 이루는 곳을 말함.
69)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들.
70) 康衢는 康衢煙月の 준말이며 이것은 태평한 광경을 이룸.
71) 秦代의 琅邪阜縣 사람으로 해변에서 약을 캐다가 팔아 河上丈人에게서 배움을 얻어 장수하였
기에 千歲翁이라 불렸다. 진 시황제는 東遊했을 때, 안기생과 함께 3일간 담론한 적이 있으
며, 그 때에 시황제가 金璧을 하사했으나 그는 받지 아니하고 다만 書·赤玉寫만을 가지고
수십년 후 나를 봉래산에서 찾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한다. 후에 진시황은 사람을 보
내어 바다에 들어가 찾아오라고 했으나 찾지 못하여 고향 阜縣에 祠堂 심수처를 지었다고 전
해진다.(『陔餘叢考』卷 34, 安期生浮邱伯傳)

의 오욕과 근심걱정 끊고 편안히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하옵니다.

정신은 가장 높은 하늘 달밤의 이슬에 놀게 하고 손으로는 三霄⁷³⁾의 星辰을 어루만지게 하소서

단군기원 사천이백오십칠년 甲子 일월 이십팔일
구주강생 일천구백이십사년 일월 이십팔일

寧海 朴龍鎬가 짓고
坡平 尹弘植이 쓰다.

[망선루의 이건 원인과 약사](해석)

생각하건대 우리 청주는 三韓古郡이고 三南雄州이다. 인물의 번영과 산천의 수려는 호남 영남의 관문이요 명승이 빼어난 곳이다. 淸州 府內에 3대 고적이 있으니 하나는 南石橋요 또 하나는 望仙樓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鐵幢竿이니 남석교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 원년 갑자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망선루의 옛 이름은 聚景樓이니 南石橋와 同年代에 營建된 것이며 鐵幢竿은 고려 광종 峻豐 3년 壬戌年에 처음 세워진 것이다. 이 3대 건축물의 宏傑하고 雄大함은 祖先의 예술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며 수리하여 본 모습대로 계승하는 것은 古人의 뜻을 잘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오호라 이 누각이 삼십삼 갑자⁷⁴⁾의 장구한 세월을 보존하여 지켜오다가 불행하게도 壬戌年(1921) 8월경에 시 구역 개정으로 인하여 헐리어 걷어치워지게 되니 우리 後人들은 탄식의 긴 한숨이 절로 나고 한 움큼의 피눈물이 왈칵 흘러나옴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을 개탄한 청주 청년회와 사립 청남 학교에서는 힘을 합쳐 이건하게 되었는데 옮겨 지음에 원형을 그대로 살리는 것은 옛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선조들이 남긴 유물을 영원히 존속하게 하며 育英의 장소를 만들어 후손의 창달을 장구히 꾀하려는 것이다.

청주읍지에 의거하면 이 건물은 객관 동쪽에 있었으며 옛 이름은 취경루다. 至正 辛丑年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하여 안동으로부터 이곳에 이주하여 수개월 머물렀다. 홍건적이 평정되자 이곳에서 文科 및 監試를 실시한다는 榜文을 전국에 발하였는데 청주에

72) 仙人의 이름으로 都唐氏의 때 槐山에서 약을 캐어 즐겨 松實을 먹고 몸에 털이 많이 생겼으며 나를 수 있었다고 한다.
73) 三霄는 三天으로 淸微天, 禹餘天, 大赤天이나 여기에서는 天上 높은 곳이라는 의미임
74) 삼십삼갑자는 33×60이니 1980년이 된다. 망선루가 철폐된 1922년부터 삼십삼갑자 곧 1980년을 역산하면 망선루의 건축연대가 남석교 건설연대와 동일한 BC 57년에 해당한다. 망선루의 유구성이 보이고 있다.

서는 후인들이 그 방문을 이곳에 내 걸었다. 오랫동안 누차 훼손되어 오던 것을 天順 辛巳 年에 지방관 牧使 李伯常이 증건하고 韓明澹가 다시 편액을 고쳐 망선루라 하였다고 운운하고 있다.

조선 현종 8년 정미년 4월 1일에 목사 李暹(이섬)이 다시 증건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단군기원 사천이백오십칠년 甲子 일월 이십팔일

구주강생 일천구백이십사년 일월 이십팔일

월성 후인 金泰熙 적고 파평 후인 尹弘植 쓰다

이상 망선루의 상량문과 약사문을 소개하였는데, 마침 1924년 당시 12살의 어린 소년으로서 상량식에 참가하여 그 광경을 목격하고 지금은 米壽의 연세이지만 아직도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증언한 李昌秀 장로가 당시를 회상하며 적은 글이 있어 여기에 소개해 본다.

상량하는 날은 펍 포근한 날씨였다. 2층 중앙에서 동쪽으로 한 칸 당겨서 대들보 밑 마루에다 儀物이 없이 나무토막(일명 마룻대)에 상량연대가 쓰여진 것이 놓여 있고, 옆에 빈 상이 있었다. 김태희 정규택 이명구 김철환 선생 등 약 50여명의 유지가 뻑뻑이 모였고 마룻대에 집어넣을 상량문을 차례로 읽고 집어서 나무토막에 넣고 꼭 맞는 나무쪽으로 덮어 막고 양쪽에다 무명베로 동여 메어 양쪽에서 달아 올리도록 묶어서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잡아당기게 하여 놓고 도목수가 빈 쟁반에 상량 값을 내놓으라고 한다.

앞에 서 있던 主謀格 유지 3~4인이 지전을 내놓았다. 마룻대를 약간 올리더니 무거워서 못 올라가니 또 놓으라고 한다. 청년들이 지전을 내 놓았다. 조금 올라가더니 또 멈춘다. 이리기를 여러 차례 거듭하다가 마침내 올라갔다.

모두가 웃으며 소리를 지르고 또 큰 소리로 나무라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습관화 되어 상여가 내를 건널 때나 비탈진 산 초입에 오를 때 어렵다는 핑계로 올라가지 않고 머물러서 돈을 뜯어낸다. 이런 식으로 마룻대를 올리는데 일부러 실랑이를 한참하고 돈을 뜯어낸 다음 들보위로 올리고 초꼬지 위에 얹어 마룻대를 쳐서 박아 놓는다. 상량목에 매었던 베(布)를 풀어서 내려뜨리니 도목수가 그 베를 차지한다. 사람들이 둘러 선 한 복판에다 빈 상을 놓고 안주 몇 접시와 乾脯 김치 등을 놓고 약주와 탁주를 반자기(半瓷器·물동이)에 가득 부어 놓고 흰 사발에 술을 따라 몇몇 유지가 마시고, 한쪽에서도 목수와 인부들이 탁주를 마신다. 청년 몇몇도 술을 마신다. 이상이 소년이 目見한 상량식의 전부이다.⁷⁵⁾

75) 이창수, 『望仙樓 再建과 上樑(上樑文 註解)』(未發表 資料) p.3.

상량식의 광경이 비교적 소상하게 표현되어 있다. 일반적인 상량식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면서 민간 유행의 일반적인 관습과 기독교적 색채가 함께 작용하고 있음이 보인다. 상량문이 적혀 있는 나무 양쪽을 무명베로 동여 메어 양쪽에서 달아 올리도록 한 장치이며, 상량문이 올라갈 때 돈을 요구하고 조금 올라 가다가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고 다시 몇 차례 돈을 뜯어내려는 장난의 풍습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크게 다른 점은 흔히 보이는 돼지 머리를 중심으로 한 희생제물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2. 망선루 복원 관계 인물 검토

대량 속에서 “상량문”, “망선루 이건 원인 약사문”과 함께 “淸州 青年會 執行委員 및 淸南學校 職員 名單” 1매가 발견되었는데, 명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淸州青年會執行委員名單(가나다循)]

權鐘萬 金喆煥 金思明 金正賢 金應三 金英植 金聖鉉 金泰熙 鄭圭澤 李明求李亨載 李熙俊 李鎬宰 李東鉉 李彰宰 李鐘舜 李冕雨 朴錫圭 白瑛基 申龍植吳正模 尹泰容 尹相元 任柱淳 崔昶楠

[淸南學校職員名單]

教長 蘇悅道
校監 金泰熙
學監 咸台永
舍監 朴濟萬
會計 郭基鉉
委員 李東鉉 宋相憲 李秉俊 朴喆圭 千瑪利亞
教師 方允根 金鳳鶴 朴魯環 朴完圭 崔昶楠 金就道
請負監督 金洸鉉
都 便 手 鄭相弼 韓翼東 金玟聲 申仲均 林滸然 吳致根

이상 청주청년회 집행위원과 청남학교 교직원 명단에 들어 있는 인물들을 찾아 소개하

고자 한다. 이것은 청주청년회와 청남학교가 망선루 이건 복원에 어떻게 관계하였으며 또한 일제기 이들 두 기관의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金喆煥은 청주에서 포목상을 경영하면서 청년회 활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일찍이 신학문에 접하여 근대의식을 가지고 문맹타파 및 사회계몽운동, 민족운동, 체육활동 등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이러한 운동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물질적으로 후원하였으며 신간회 청주 지부결성에도 진력하였다. 한 때, 동생(東煥)이 학교 교사로 재직 중 민족사상이 강하여 사상불온으로 면직을 당하여 일자리가 없게 되자, 그는 자금을 대어 동생으로 하여금 민족주의 계통의 동아일보 청주지국을 경영하게 하였다. 동아일보 청주지국에서는 체육을 통한 민족적 단결과 한국인의 긍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축구, 정구, 병상 등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때에도 경비의 많은 부분을 김철환이 후원하였다고 한다.

金正賢은 서울태생으로 민노아(F.S Miller 閔老雅) 목사⁷⁶⁾를 만나 그와 함께 청주에 내려와 助事(傳道師)로서 충북의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기독교 전파에 헌신하였다. 괴산 연풍면의 오수교회(1904년에 세워짐), 충주제일교회(1905년 세워짐) 등을 개척하여 세우는데 크게 공헌한 인물로, 1919년에 金鍾元⁷⁷⁾과 함께 충주제일교회장로가 될 정도로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들로부터 신망을 얻었으며,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젊은 층에게 근대의식을 고취시켰다. 후에 목사가 되어 서울 공덕동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였으며 은퇴 후에는 문서 선교에 힘을 썼으며 그의 “講臺寶庫”라는 설교 예화집은 당시 최초로 간

76) 민노아 목사(1866~1937)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서, 구한말 기독교 복음을 전하러 청주에 온 최초의 서양선교사이다. 그는 1892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와 1893년에는 교장에 취임하였으며 학교 이름을 “민노아학당”(“예수학당”이라고도 하였으며 후에 서울 “경신학교”가 되었다.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학교의 학생이었다고 한다.) 제3대 교장을 지낸바 있다. 1900년에는 김홍경과 함께 청주시장에서 전도한 적이 있으며, 1904년 청주에 도착하여 그가 전도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주읍교회를 세우고 선교활동을 펴는 한편 교육사업에도 전념하였다. 양관에 거주하면서 일생을 청주지역에서 기독교 복음 전파와 교육에 헌신하다가 1937년 10월 향년 71세로 생을 마쳤는데, 그의 무덤은 그가 살던 딸 곧 청주일신여자중고등학교 구내에 있다.

77) 김종원은 사립 청남학교 제1회 졸업생(그것도 졸업대장 번호가 제1호의 졸업생임)인데, 졸업 후 청주읍교회 집사·영수·장로의 직을 역임하였으며, 한편 청남학교 교사로 11년간 봉직하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청주청년회 총무, 기독교청년회 총무로서 청년회 활동에 적극적이었고 청주읍교회 장로로서 교회 봉사와 교육에 정열을 쏟았는데, 1922년 3월 22일 청남학교 재직 중 세상을 떠났다. 전순동·최동준 1999.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청남학교를 중심으로-」 『中原文化論叢』2·3합집, p.115.

행된 예화집으로 유명하다.

金應三은 청년시절 淸州兵營에 근무한 일이 있으며 남문로 1가에서 마차공장을 경영하였다. 기독교 신자로 청년회원이 되었으며 특히 민족운동 사회운동에 열정적이었다. 그의 열렬한 신앙심과 사회 활동이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아 1923~25년경에 청주제일교회 장로가 되어 지도적 위치에서 청년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아들인 金敬泰는 청주 고보를 졸업하고 전남 나주지방에서 교편생활을 하였다.

金英植은 경상도 출신으로 청주탑동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청주제일교회 교인이 된 후 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 때, 양관에서 민노아 선교사의 가사를 돌보며 생활한 적도 있으며 자녀들 교육에 정성을 쏟았다. 장남 金順萬은 동경에서, 차남 金順信은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으며 딸은 蘇民病院 간호사가 되어 봉사하였다.

金泰熙 장로(1881~1397)는 일찍이 신사상에 눈을 뗐고 기독교에 귀의하여 청주읍교회 장로가 되었으며 평생을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몸바쳐 봉사한 애국지사이다. 그는 1904년 러일전쟁의 격동기를 맞이하였을 때, 27세의 젊은 나이로 교육사업에 뜻을 두고 그해 11월 方興根, 金元培 등과 함께 교육구국의 이념을 가지고 청남학교(당시는 廣南學校라 함)를 창설하였다. 그는 교감으로서 학교를 개화 사상에 의한 새로운 학문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크게 이바지하였다. 1909년에는 청신여학교를 설립하여 이 지역 여성교육에도 일조하였다. 대외적으로는 1909년에 대동청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1919년 기미 독립운동 때에는 국내의 독립운동이 실패하자 선두에 서서 양봉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밀송하면서 해외 독립운동을 도왔다. 특히 상해 임시정부 연통제의 총북 참가로서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921년에는 장덕수가 주도한 “조선청년회연합회 총회”의 창립총회 정규택과 함께 청주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이 때에 총회 간부로 선임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청주청년회 회장, 신간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청년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한 독립운동가로서 유명하다. 일제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어 사라질 뻔한 망선루를 청주제일교회로 이건 복원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복원사업을 주관하고 담당한 주역인물이다.⁷⁸⁾

鄭圭澤은 구한말 감찰벼슬을 한 사대부집안 출신이다. 한학에 출중한 청주 유지였으며 애국애족의 정신이 투철하여 일본정치 하에서의 관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일제시기에 강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주변사람들에게 ‘근면’을 강조하여 우리민족을 잘사는 민족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친족이나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생활을 비판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잘 살 수 있으며, 게으르면 평생을 고생한다”는 신념 하에

78) 정부에서는 그의 독립 유공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근면으로 민족의 가난을 구하려 한 務實力行의 인물이었다. 외적으로 일본과의 투쟁과 내적으로 근면을 통한 민족적 자립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교회의 각종 집회에 자주 참석하였으며 문맹퇴치 및 각종사회 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년회원이다.

李明求是 의사 출신으로 충북지사를 역임한 이 지역 인사이다. 1892년 청원군 梧倉面 梧峴里 빈한한 농가에서 출생하였으나 한학에 능통하였으며 서울 京城醫學 專門單校를 마친 후 남문로 1가에 “新明醫院”을 개원하였다. 의사로서 가난한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기도 하면서 지역민의 건강 보건 증진에 힘쓴 청주청년회원으로, 항상 우리 민족에게 애국사상을 고취하였기에 일본 경찰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찍혀 감시를 받고 시달림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특히 청주지역을 교육·문화도시로 만드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김원근을 도와 대성학원설립과 발전에 기여하였고, 주성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청주중학교 등 여러 학교의 후원회장·기성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이 지역 학교 발전에 노력하였고, 민족교육을 위한 장학사업(殷成獎學會)도 적극 추진하여 이 지역 교육발전에 헌신 봉사하였다. 일제시기 시의원, 도의원, 중추원 참의직을 역임하였는데, 그것이 친일의 활동이라 하여 해방 후 친일행위를 한 사람을 처단하는 反民特委에 소환되어 심문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정치에 크게 협력한 것이나 반민족적 행위를 한 것이 없고 도리어 인재양성과 민족교육을 위해 장학회를 창설하는 등 육영사업에 앞장섰음이 인정되어 무사히 석방되었으며, 그후 충북지사에 임명되어 도정을 책임지고 충북도 발전에 헌신하였다.⁷⁹⁾

李亨載는 한학이 풍부하고 성격이 원만하며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청주청년회 활동을 하였다. 동생이 되는 李亨均은 한약건재상을 경영하였다.

李熙俊은 청주양조장 사장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사교적이고 理財에 밝았다. 청년회 활동에 물질적 후원을 많이 하였으며 슬하에 3남매를 두고 다복한 가정을 이끌어갔다. 장녀는 이화 여전을 졸업하여 서울 명사의 가문으로 출가하였고 아들 이형배는 세브란스 의과를 나와 청주도립병원 내과과장을 거쳐 해방 후 도립병원 원장이 되었다.

李鎬宰는 청남학교에서 국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항상 백의 민족과 동방예의지국을 강조하고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역설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신앙이 돈독하여 청주제일교회의 장로가 되었으며, 후에 청안교회 장로로 봉직하기도 하였다. 언변이 좋고 교회에서 설교도 잘하여 인정을 받았으며 동생 李彰宰와 함께 청년회 활동에 열성적이어서 타인의 귀감이 되었다. 망선루 이건 당시 청주제일

79) 1971년에는 79세의 나이로 可東 『自敘傳』을 지어 발간하였다.

교회 장로였다.

李東鉉은 청주지역 부호의 장자로 태어났으며 청주청년회와 사회사업에 헌신 봉사한 인물이다. 장남 이영옥은 서울대 치과를 졸업한 후 서울치대의 교수와 학장을 역임하였고 차남 이영태는 청주세무서에 봉직한 후 지금은 청주 탑동에 거주하고 있다. 딸 이차례는 이화여전을 졸업한 후 함태영 부통령의 孫婦가 되어 함태영 목사를 모시고 생활하였으며 YWCA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크게 봉사하였다.

李彰宰는 앞에 설명한 청년회원 李鎬宰의 동생으로 청남학교 교사로서 국어(조선어)와 산술을 담당하면서 학생들에게 애국애족의 정신을 고취하였다. 특히 아침 조회 시간이면 수업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이야기, 로마의 압제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메시아 출현을 기대하며 생활하던 성경 이야기 등을 자주 들려줌으로써 일본 통치 하에서의 민족의식을 고양하였다. 특히 동화를 잘 구사하였다. 청주제일교회 장로가 되었으며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목사가 되어 청안교회, 영동읍 교회 등에서 목회하기도 하였다.

申龍植은 청원군 加德 출신으로 청주에서 사법대서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청년회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온화한 성격에 사리가 밝은 청년회원이었다.

任柱淳은 비교적 여유 있는 집안 출신으로 연희전문을 졸업하였으며 음악 애호가이다. 특히 클라리넷을 잘 다루었다. 그는 예배시간에 종종 특별출연으로 연주하기도 하고, 음악회나 연극공연이 있을 때 번번이 출연하여 연주하였는데, 그의 클라리넷의 특유한 음색이 청중을 사로잡아 크게 인기를 모았다. 동생 任陸吉도 교회 청년회와 청주 청년회원으로서 활동하였다.

崔稔楠은 청남학교 국어담당교사이다. 김태희 장로를 뒤이어 청남학교 교감으로써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항일구국 운동을 고무하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감수성이 예민하여 사물에 잘 감동하였으며 문학적 재능을 갖추고 있었다. 학교교육을 담당하면서 틈틈이 어린이를 위한 많은 동요와 동시를 지어 발표하였는데, 그것도 단순히 어린이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어린 새싹들에게 꿈과 용기와 민족을 안겨다 주는 소재의 작품을 많이 발표함으로써 나라 잃은 소년 소녀들에게 민족정신을 심어주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일깨워주었다. 일제기 이 지역 유일의 어린이 운동가요 아동문학가이다. 해방 후 초등학교 음악교재에 실려 널리 애창되었던 “봄이 왔어요”라는 동요도 바로 그가 창작한 동요라 한다.⁸⁰⁾ 어린이 운동가요 아동문학가인 그는 또한 한글운동가로서

80) 崔稔楠에 대해서는 全淳東·崔東峻, 1999. 「日帝期 淸州地方의 民族教育運動-淸南學校를 중심으로-」, 『中原文化論叢』2·3합집, pp.122-129 ; 李昌秀 1998, 『回想錄』계명사, pp.248~253 ; 全

우리말 교육을 강조하고 보급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으로 점점 한글을 폐지하여 나갈 때 그는 역으로 한글 철자법을 익히게 하고 한글 바로 쓰기를 가르쳤다. 이와 같은 활동은 학교 내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실시되었는데, 청주청년회관에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차례 우리말 교육을 실시하였다. 1932년 8월에는 평소 교분을 가지고 있던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을 초청하여 망선루에서 7일 동안 한글 강습회를 열어 한글의 우수성과 철자법 및 문법적 기초지식을 익히게 하였다. 이러한 한글 운동 주선으로 최창남은 일제의 감시 대상이 되었으며 사소한 일로 가택 수색을 당하여 많은 아동문학작품이 압수 당하고 활동이 제한되기도 하는 등 그에게 많은 탄압과 고통이 뒤따랐던 것이다.⁸¹⁾ 그는 어린이 운동 한글운동을 통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여 나갔다. 많은 동요 동시를 지어 어린이에게 우리 민족혼을 넣어 주었고 일본어를 전용하고 한글을 없애려는 일제의 정책에 대항하여 극력 한글운동을 전개하였다고 볼 때, 그는 암울한 일제기 충북 최초의 어린이 운동가, 아동문학가, 한글운동가로 평가되어 지기에 충분한 인물이다.

이상 청주청년회 집행위원회의 인물을 살펴보았으며 청남학교 교직원 명단에 속에 있는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蘇悅道(1890~1970 Soltau T. Stanly) 목사는 미국 북장로회 한국 선교사로 한국 이름이 소열도이다.⁸²⁾ 본래 영국인으로 호주 타즈마니아 섬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으며 15살 되던 해에 그의 가정은 미국으로 건너갔다. 1914년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으며 그해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사로 위촉되어 부인과 함께 한국에 왔는데, 그의 나이 만 24세 때였다. 그가 한국을 택하게 된 것은 대학 4학년 때 그 학교를 방문한 尹山濫(McCune, George S. 1872~1941)목사⁸³⁾의 "Korea"라는 강연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1914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한국에 도착하여 선천, 만주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1918년 청주에 도착하여 1937 한국을 떠날 때까지 만 20년간 청주를 비롯한 충북의

淳東, 1999. 「崔稔楠의 생애와 활동」 『淸州文化』14(淸州文化院), pp.183~192 ; 박종렬, 1990/2. 「생활로 드러난 신앙, 최창남 선생」 『빛과 소금』, pp.150~151. 참조

81) 崔稔楠의 한글운동에 대해서는 全淳東·崔東峻, 위의 논문 「日帝期 淸州地方의 民族教育運動-淸南學校를 중심으로-」, pP.129-133 ; 전순동, 1999. 「최창남의 생애와 활동」 『淸州文化』14, 참조.

82) 소열도 목사에게 관한 소개는 安載明, 『淸州地域에 福音이 들어온 이야기』 82-91 ; 忠北基督教歷史研究會, 2000.7.10. 『忠北基督教歷史研究會報』 제5호, pp.3~5.

83) 미국 북장로회 한국선교사로 한국명이 운산온이다. 파크대학을 졸업하고 1905년 부인과 함께 내한하여 송실학교 교장 베어드를 돕다가 1909년 신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1928년에 평양송실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936년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교장직이 취소되었으며 탄압을 받다가 추방되어 그해 귀국하였다.

선교와 교육에 헌신적이었다.⁸⁴⁾ 일제기 일본의 지배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청남학교에서는 선교사를 교장으로 두고 있었는데, 당시는 소열도 목사가 청남학교 교장으로 있었다. 그는 1935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하여 한국장로회 선교회 공식입장으로의 반대 운동에 앞장섰으며 그가 교장으로 있던 청남학교도 신사참배를 극력 반대하였다. 그런 이유로 청남학교는 1936년 일시 휴교 처분 당하기도 하였다.⁸⁵⁾

金泰熙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청남학교의 창설자, 청년운동의 선구자, 독립운동가, 청주제일교회 장로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인데 당시 교감직에 있었다. 교장으로 소열도 목사가 있었지만 그는 명목상이었고 또한 충북지역 순회 전도와 대외 활동으로 분주하였기 때문에 자연 학교 실무적인 책임과 운영은 교감인 김태희 장로가 거의 담당하고 있었다.

咸台永은 장로교 목사이며 법률가, 독립운동가, 정치가, 기독교 지도자로서 크게 활약한 인물이다. 한성법관 양성소 제1회 졸업생으로서 일찍이 판사로 활동하였으며 한일 합방 후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3·1운동 당시 독립운동을 주로 기획하고 추진한 주요 민족대표 49인 중의 한사람이다.⁸⁶⁾ 기독교와 천도교의 합작과 운동의 전국화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특히 청년·학생층의 대대적인 참여와 동원에 책임을 지고 활동하다가 이 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출옥 후 중단한 신학을 계속해 1922년 평양신학 졸업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청주읍교회(제주제일교회)의 제5대 목사(1922~1928)에 부임하였다.⁸⁷⁾ 6년간 목회하던 중 망선루 이건 복원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망선루 이건 장소를 교회부지로 선정하는 문제, 부족한 건축자금을 서울에서 모금하여 오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준 청주제일교회 목사이다. 후에 마산교회, 문창교회, 서울 연동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으며 장로교 총회장(1932)을 역임하였고 1951년 제 3대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1956년에는 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이 되었고, 한국신학대학 학장도 역임하는 등, 해방 후에도 정치가 종교가 교육가로서 크게 활약하였다. 망선루 이건 당시 청주제일교회 목사로서 청남학교의 敎學을 감독하는 위치에서 망선루 복원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일생을 민족과 신앙과 청년을 끌어안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朴濟萬은 소박한 성격의 소유자로 청주시내에서 약종업을 경영하였다. 잘 살아야 다른

84) 청주에 있을 때 그의 두 살 난 딸 아이를 잃었는데 그 어린아이의 무덤이 일신여중교 선교사 무덤에 자리하고 있다.

85) 청남학교의 신사참배 반대와 휴교 처분에 대해서는 전순동·최동준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 교육운동-청남학교를 중심으로-」 『중원문화논총』 2·3집 pP.117~121 참조

86) 朝鮮總督府, 1924. 『朝鮮의獨立思想及運動』 調査資料第十輯, pp.38~42.

87) 청주제일교회, 1984. 『청주제일교회발자취』, pp.26~30.

사람에게 본을 보여 줄 수 있으며, 가난을 면하는 길은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이라면서 분수를 지키며 검약하는 생활로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청주 청년회원이었으며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로 청주제일교회 장로가 되었고 청남학교 사감으로 봉사하였다. 둘째딸은 조선신학교 설립에 크게 기여한 김대현 장로의 며느리가 되었으며 그의 부군은 김영한 장로이다.

郭基鉉은 연희전문을 졸업하였으며 청주제일교회 집사로서 청주청년회에서 활동하였다. 이화여전을 졸업한 청주제일교회 서상필 장로의 딸과 결혼하였다. 교회 찬양대를 지휘하였으며 연극을 즐기기도 하였다. 김연수 선생이 경영하는 京城紡織의 상무로 발탁되어 상경함으로써 청주를 떠나게 되었다.

宋相憲은 한학을 수학하였고 시내에서 정미소를 경영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였다. 경제력과 착실함이 인정되어 오랫동안 청주제일교회 회계집사로 봉사하였다. 장로가 될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일날 방앗간을 쉬지 않으므로 장로가 되지 못하였다가, 후에 주일날 방앗간을 쉬도록 결단을 내리고 장로로 피택되어 장로 안수를 받았다고 한다.

李秉俊은 도목수로 명성을 날린 부친의 업을 이어 목수 일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선교사를 도와 勸書로서 봉사하면서 화당, 문의 등의 지역을 순회하며 교회 개척하는 일에 힘썼다. 후에 청주제일교회 장로가 되었다.

朴喆圭는 이름으로 보면 남성 같으나 실은 여성이다. 남문로 1가에서 기술자를 두고 과자와 빵을 만들어 직판하는 제과점을 경영하였는데, 이 제과점은 교회 및 시내 청년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그는 교회에서 부인반 성경공부를 담당하였고 찬송가를 가르치며 보급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부인전도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교육문화운동에 관심이 많아 당시 청남학교 위원으로 활약하였다. 이화여전에 들어간 딸이 승마를 하다가 낙상하여 부상을 입고 끝내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 서울로 이사하여 청주를 떠났다.

千瑪利亞는 청주제일교회 김현태 장로의 모친으로, 근면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일년 내내 새벽기도를 거르지 않고 정성으로 들이는 신실한 여집사로, 매년 연말이면 여전도회 사업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사업을 기꺼이 주선하는 등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있다.

方允根은 청주제일교회 이성현 집사의 제 2남으로, 서울에서 중학을 마치고 돌아와 청남학교에서 영어와 수학을 담당하였다. 성악이 재능이 있었으며 교회 성가대를 도우며 음악발전에 기여하였다. 친형인 方興根은 일찍이 김태희 김원배 등 교육구국의 이념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힘을 합쳐 광남학교(청남학교의 전신)를 열고 자신의 집을 학교 교사

로 제공할 정도로 헌신적인 인물이었다.

金鳳鶴은 대구 출신으로 성악에 재능이 있었으며 청남학교에 부임하여 음악을 가르쳤다. 예배시간 틈틈이 바리톤으로 부르는 그의 독창은 경건한 예배 분위기를 더욱 북돋았으며, 교회 성가대에서의 베이스 파트의 중심역할을 하였다. 또한 야구의 명포수로도 널리 정평이 나있다.

朴魯璟은 청주군 남일면 장암리 출신으로 어렸을 때 한학자인 엄친 시하에서 한문을 배웠다. 강서 보통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뜻한 바 있어 대우가 약한 청남학교 교사로 옮기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후에 일본 京都에 있는 모 방직회사의 야간학교 겸 사감으로 부임하였다. 장남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둘째 아들, 셋째아들 그리고 딸을 데리고 일본으로 갔다. 둘째아들 朴完圭는 일본 同志社대학을 졸업하였고, 셋째아들 朴正圭는 서울 의전을 졸업하였으며 딸은 공주사범을 졸업하였다. 둘째아들 박완규는 한의술을 익혀 청주시내에 유명한 甘草堂韓醫院을 개원하여 인술로 명성이 높으며 지역사회에서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봉사에 크게 이바지하다가 2000년 9월 13일 향년 8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⁸⁸⁾

金就道는 여교사로 청남학교에서 성경과 습자를 가르쳤다.

請負監督 金洸鉉, 都 便 手 鄭相弼 이하 韓翼東 金玟聲 申仲均 林滹然 吳致根 등 여러 목수들이 건축을 담당하였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임호연 장로 외에 잘 알 수가 없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당시에 망선루 건축과 같은 고건축에 참여하는 목수는 특수 기능을 지닌 전국 규모의 목수가 참여함으로 외지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인적사항을 잘 알 수가 없다. 임호연은 신대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망선루 건축 후 1927년 덕촌교회 장로가 되었으며 6.25때 순교하였다. 그의 행적이 용인군 양지에 있는 한국기독교순교자 기념관에 안치되어 있다.

이상 망선루에 기록된 여러 인사들을 살펴보았으나 여기에 기록된 인물들은 한결같이 모두 세상을 떠나 생존자가 한사람도 없다. 더욱이 아직 행적을 찾을 수 없는 몇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⁸⁹⁾

88) 박완규는 1995년에 『落穂·이삭』을 발간하였다. 감초당한의원은 현재 한장훈 원장이 맡고있다.

89) 아직 행적이 찾아지지 않은 사람으로는 權鐘萬, 金思明, 金聖鉉, 李鍾舜, 李冕雨, 朴鍾圭, 白基, 吳正模, 尹泰容, 尹相元 등이 있다.

V. 망선루 상량문의 성격 및 의의

이상 망선루 상량문과 함께 발견된 문건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문건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망선루 상량문의 전체적 흐름은 神仙思想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望仙樓”라는 이름과 당시의 일반 민간신앙에서 연유한 듯하다. 신선사상은 不老長生 長生不死의 선인이 되는 것을 기원하는 것으로 이른바 장수와 건강과 정신의 평안함을 꾀하려는 사상으로 노장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와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면이 있는데, 신선사상에서의 장생추구는 현세적이라 한다면, 기독교의 사상은 천국을 소망하는 내세적 신앙이라 할 수 있다. 다 함께 영생복락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상호 타협과 용인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단순한 이러한 장생추구나 영생복락이라는 관념적인 것보다도 일제의 식민지 탄압가운데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절망을 탈출하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구가하며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는 이른바 ‘민족의식’이라는 기풍이 양자 결합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며 그것이 망선루 상량문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망선루의 悠久性이다. 건축연대를 BC 57년까지 거슬러 올려 보고 있다는 것이다. “망선루 이진 원인과 약사문”의 글 가운데에 “오호라 삼십삼 갑자의 장구한 세월을 보존하여 지켜오다가 불행하게도 임술년(1922) 8월 경에 시 구역 개정으로 인하여 헐리어 걷어치워지게 되니 ...”라는 내용이 있다. 삼십삼 갑자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980년이 되고 이것을 역산하여 거슬러 올라가면 남석교의 건축연대인 오봉 원년, 곧 BC 57년과 거의 맞아떨어지게 된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망선루를 단순히 고려시대의 건물로만 생각하지 않고 유구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자랑스런 건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망선루의 처음 건축연대에 대해서는 현재 확실히 잘 알 수 없다. 이 망선루에 대해 최초로 소개하고 있는 『新增東國輿地勝覽』도 그저 고려 때 건물이라는 말은 있어도 언제 세워졌는지 처음 세워진 연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처음의 창설시기를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일제 시기 청주 시민들은 이 건물의 최초의 시기를 남석교와 같은 연대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청년회원으로서 망선루 복원사업에 함께 참여하였던 可東 이명구는 망선루에 대해서 “망선루는 한 선제 오봉 원년 시대에 청주명물 남석교와 동시 건립된 우리 청주 고적 중 가장 역사가 長遠한 건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⁹⁰⁾ 망선루

90) 李明求, 1970. 『自敍傳』, p.54.

의 최초 건축 시기가 남석교와 동시대의 것이라 한다면 남석교의 건축연대를 漢 宣帝 五鳳 元年 곧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운 BC 57년으로 볼 때, 망선루는 실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문화재라 아니할 수 없다. 설령 망선루의 연대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한다 해도 일제기 청주 청년회원들의 인식의 기저 가운데에 강한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청주 3대 문화재로서 남석교, 철당간, 망선루를 들고 있으며 이 문화재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넷째, 망선루의 이진 목적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곧 民族文化材 保存과 育英의 場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 건물은 청남학교의 교사로 사용되었고 야학이나 각종 강연회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다섯째, 작성연월일의 표기를 “檀君紀元”과 “救主降生”을 병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적인 측면과 기독교적인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보이는 일이며 당시 기독교가 민족문제에 깊이 관계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西紀’라 하지 않고 ‘구주강생’이라 표현하여 서양적 기원의 개념보다 기독교적 관념을 선호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여섯째, “淸州 青年會 執行委員 및 淸南學校 職員 名單”은 일제기 청년회 활동 연구 및 청남학교의 위상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청주 청년회 집행위원과 청남학교의 교직원 명단은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고증해 줌과 동시에 인물이 분명히 명기되어 되어 있어 지역사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이들 인물에 대한 바른 고증과 그것을 통한 폭넓은 향토사의 이해가 전망된다.

일곱째, 청주 청년회 및 망선루 이진 작업에 관계한 인사들 가운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계하고 있음도 주목할 일이다.

여덟째, 청주 청년회, 청남학교, 기독교 이 삼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민족문화와 육영을 위해 하나가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홉째, 이 망선루에 관계된 명단에 여성의 이름이 3명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미 청주에서는 충북최초의 여학교로서 1909년에 기독교계통의 사립청신여학교가 개설되어 가정에 갇혀 있던 여성들에게 교육과 사회활동의 기회를 주기 시작하였고, 망선루 이진 후에 남녀 공학의 청남학교에 많은 여성들이 신식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아 왔다. 이로 인하여 문맹 여성이 눈을 뜨게 되고, 가정의 생활양식 뿐 아니라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 평등의 의식이 크게 고양되었다. 청주 지역에서의 기독교와 여성교육과의 관계, 그리고 그 영향 등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만한 과제이다.

VI. 결론

이상 망선루 상량문의 내용, 상량문에 관련된 인물, 상량문이 가지는 의의 등을 살펴보았다. 망선루 상량문의 내용은 신선사상을 크게 담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망선루라는 건물명이 가지는 의미를 살린다는 데서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허무주의 의식과 속박에서 벗어나 장생불사의 회구를 만족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다. 일제 식민지의 억압으로 우리 민족의 삶이 왜곡되고 자유가 속박된 상황에서 신선세계를 동경하고 꿈꾸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절망이나 환멸을 대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로의 동경, 그리고 민족의 장생불사를 기대하는 민족적 염원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망선루 이전작업에 많은 기독교인이 참여하였음에도 신선사상이 깊게 담겨져 있는 상량문이 포용되어 채택된 것은 바로 이 민족 독립의 염원이라는 공통의 숙원이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일제기 청주 청년회, 시민, 청남학교 교직원, 학생, 기독교인 등은 이 망선루를 통하여 일체감을 가지고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고 동량재를 키우면서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기조는 이미 망선루 상량문 및 이건 약사문에 잘 담겨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망선루는 그 자체만으로 일제의 압박에서 민족을 지키려는 산 증인이었으며 망선루가 고려시대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건축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근·현대사, 그리고 기독교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귀중한 문화재로 오늘의 이 지역사와 호흡을 같이하게 된 것도 바로 여기에 연유한 것이라 생각된다. 망선루 이건 복원과정과 더불어 망선루의 상량문과 약사문에 이미 강한 민족 의식과 항일 운동을 위한 행동의 다짐과 포부가 깃들여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망선루는 민족의 시련 앞에 청주지역사회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일제기에는 항일민족운동의 에너지의 공급원으로서, 민족적 정통성 계승자로서, 교육구국운동의 요람지로서, 그리고 각종 사회문화운동의 센터로서 그 기능을 다하여 왔고, 해방 후에도 교육, 문화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계승하여 왔으니, 실로 민족·교육·역사문화의 산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망선루가 현재 중앙공원에 복원되고 있는 중이다. 아무쪼록 폭넓은 고증을 통해 새롭게 원형대로 복원되어 찾는 이로 하여금 역사의 숨결을 느끼게 하고 이 지역 향토사와 문화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러한 늠름한 망선루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망선루 상량문에 관계된 인물에 대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신 이창수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부기]

청주제일교회 구내에 있던 망선루가 1999년 10월말부터 11월 초에 걸쳐 해체되어 현재 중앙공원 북편지역에 이전 복원 건축 중에 있다. 청주제일교회 구내 옛 망선루 자리에는 옛터를 기념하여 높이 1.8m의 커다란 비석(좌대 : 가로 150×세로 110cm×폭 50cm, 비면 : 가로 120×세로 70×폭 25cm)을 세우고 그 비문에 망선루의 역사와 의의를 새겨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선학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잘 이어받도록 하고 있다. “망선루터”라 크게 새겨진 이 비석은 2000년 7월 1일에 건립되었는데, 여기에 그 비문을 소개한다.

망선루 터

‘청주제일교회’의 자리, 이곳은 망선루가 76년간(1923~1999) 옮겨와 있던 자리이다. 망선루는 고려 때에 세워진 목조건물로 당초 이름은 취경루(聚景樓)였으며 지금의 북문로 1가 청주객관동쪽(옛 청주경찰서 터)에 있던 2층 누각이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세조 7년(1461) 한명회(韓明澮)가 누각의 편액을 고쳐 망선루(望仙樓)라 하였으며 그 후 몇 차례 중수(重修)를 거듭하여왔다. 이 망선루는 그동안 수많은 시인묵객이 문장을 짓고 시국을 논하던 우리 고장문화의 산실이었다. 1921년 일제(日帝)의 무덕전(武德殿) 신축으로 망선루가 헐리어 사라질 운명에 처하자 독립운동가이며 청주청년회 회장이었던 김태희 장로를 중심으로 함태영 목사, 이명구 선생 등이 주축이 되어 망선루 보존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 청주청년회 청남학교 그리고 시민과 기독교인들이 적극 동참하여 1923년 이곳 청주읍교회에 망선루를 이건설 수 있었다. 이는 청주지역 민간단체가 벌인 최초의 시민운동으로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역사적 쾌거였다. 망선루는 일제 때에는 청주지역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청남학교, 상당유치원, 야학 등의 민족교육운동과 한글강습회 각종 집회 및 강연회 등 사회운동의 장(場)으로 활용되었다. 해방 후에는 세광중·고등학교 청신고등공민학교 등 육영의 장소가 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해 내었으니 민족운동 교육운동 사회문화운동의 요람으로 그 기능을 다하여 왔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망선루는 청주가 교육과 문화를 소중히 가꾸어 온 역사적인 도시

임을 웅변해 주는 대표적인 건물이라 하겠다. 근자에 이르러 망선루가 노후하여 지탱하기가 어려워지자 청주시민과 각 분야 단체들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망선루를 원래의 자리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99년 10월 이 건물을 해체하여 청주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앙공원으로 옮겨 세우게 되었다. 그간 일제의 민족정신 말살정책을 이기고 서 있던 이 자리에는 그간 한결같이 망선루를 지켜 온 청주제일교회에 감사하는 마음과 선학(先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청주시민의 뜻을 모아 이 비석을 세운다.

2000년 7월 1일

청주시 : 청주문화사랑모임

조각 : 송일상

문안 : 김민형 : 한국지명학회